Stage 9 Fiction – The Spooks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Normal 가족과 유령 가족은 모두 Tottering Towers에 살고 있지만, Normal 가족은 낮에 깨어있고 유령들은 밤에 깨어있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이 자신들의 집을 부술 정도가 되자, 그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Talking Points (중요 포인트)	- 제목을 함께 읽어보세요. 아이에게 이 이야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캐릭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 말장난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이가 8페이지에 있는 'great'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농담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아이가 이야기를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16~17페이지를 함께 읽어보세요. 운율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아이가 16페이지에서 사용된 운율로 쓰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fter reading (책을 읽은 후)	- 이 이야기의 결말에 관해 이야기해보세요. 아이가 예상했던 것과 같나요? 아이는 이것이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하나요? - 만일 아이가 이 이야기를 좋아했다면 그들은 Janet과 Allan Ahlberg가 쓴 *Funnybones*와 같은 유령에 대한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읽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유령들을 만나보세요 유령을 만나고 싶나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세요.
P4	여기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마와 아빠 유령, 유령인 Luke와,
P5	투덜이 Lisa와 아기 Boo입니다.

	"우우!" 이건 그들의 박쥐 애완동물, Tibbles입니다. 그들은 Tottering Towers에서 모두 같이 살았습니다.
P6	Tottering Towers는 아주 오래되고, 오래된 집입니다. 그 유령들은 여기서 몇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정원은 어수선했고, 연못은 냄새가 나고 집은 먼지와 곰팡이로 지저분하며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령들은 그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P7	도시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장소는 청소가 필요해요. 아무도 그것이 어지럽혀 보이는 동안엔 우리 도시를 방문하지 않을 거예요!' 유령들은 있는 그대로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떠한 것도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P8	어느 날, 다른 가족들이 Tottering Towers로 이사를 왔습니다. 유령들은 새로운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평범한 가족이잖아.' 엄마 아빠 유령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의 조부모는 여기서 살았어. 그들의 증조 부모와 그들의 증-증-증-조부모들도 그랬고...' '저만큼 유서 깊은 가문도 없죠.' Lisa가 신음했습니다.
P9	이것은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엄마, 쌍둥이인 Norman과 Norma, 그리고 아기 Babette, 그리고 그들의 애완동물 고양이 Nigel. '그들은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정상이네요!' 유령 Luke가 말했습니다.
P10	'오, 우와!' Norman과 Norma가 집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난 여기가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하겠어.' 엄마가 걱정했습니다. 벽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 조금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균열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P11	'걱정 마세요, 엄마' Norman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수리할 수 있어요.' Norma가 덧붙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기 Babette가 노래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유령이 조금 있어.'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롭지는 않아.' '그건 그들 생각이겠지!' 유령인 Luke가 야유했습니다.
P12	2 악몽의 이웃! 일반 가족과 유령들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두 가족은 많은 소음을 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P13	Norma와 Normal 그리고 투덜이 Lisa는 투덜거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아, 내가 해야 해? 이건 불공평해...' "우아!!"

	두 마리의 애완동물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P14	하나의 큰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일반 가족은 깨어나서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P15	유령 가족은 깨어나서 밤새 시끄러웠습니다. 첫 주의 끝 즈음, 각자 가족들은 정확하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야 해!"
P16	3 장난, 장난 그리고 더한 장난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유령들이 말했습니다. '그쪽 유령들도 장난이 아니네요!' Normals가 말했습니다. "저 박쥐는 불쾌하고 심술궂어요!" "저 고양이는 멍청하고 맛이 갔어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P17	두 가족은 서로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치고 또 쳤습니다. 조롱과 놀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건들이 밤중에 이익! 하고 소리치게 하였습니다.
P18	두 가족의 싸움으로 집이 비틀거리고 흔들렸습니다. "똑, 똑." "누구세요?" "우우!" "누가 우우 거리는 거야?" "저 유령이 뭘 울고 있는 거야!"
P19	먼지가 흩뿌려지고, 거미줄이 떨어지고, 균열이 커지고 커지더니 결국…… …와르르! 굴뚝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P20	4 우리 집을 부수지 마세요! 소방관이 도착했고, 경찰관이 도착했고, 시장님과 심술궂은 구경꾼들이 도착하였습니다. '이 집은 안전하지 못 합니다.' 그들이 Normals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집을 고칠 수 없으면, 여러분은 이사해야 합니다.'
P21	'와! 와아!' 유령들이 환호했습니다. 적은 소방관들이 혼란스럽게 보았습니다. 시장님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우리는 이 집을 허물게 될 거예요. 더욱 안전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유용한 슈퍼마켓이나 사무실이나… 혹은 어쩌면 고속도로를 지을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안 돼애애애!' 유령들이 신음했습니다. '우리의 집을 부수지 마! 오, 안 돼애애애애애!'
P22	그들이 이 모든 울부짖음을 들었을 때, 소방관들은 매우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장님과 심술궂은 사람들은 겁에 질려 보였습니다. '안 돼애애애!' '안 돼애애애!' '안 돼애애애!' '저게 뭐지?'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오, 저건 그저 유령일 뿐이에요.' Norma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가신 존재예요!' '안 돼애애애애애! 그렇지 않아요!' 유령들이 울부짖었습니다.
P23	사람들은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소방관들은 아주 흥미로워 보였고 시장님은 흥분되어 보였습니다... '아하!' 그가 말했습니다. '오, 호!' 그도 말했습니다. '유령들이란 말이지, 어?' 그는 심술궂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돌아왔습니다.
P24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유령의 집은 우리 마을에서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관광객에게 좋겠어요!" "우리 마을을 더 신 나는 곳으로 만듭시다!" '그리고 당신은 티켓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수리 비용으로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도우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P25	Normals 가족과 유령 가족이 회의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P26	그들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TV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P27	두 가족은 시간표를 짰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귀신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등장하였고 사라졌으며- 아기는 소리쳤습니다. 우우! 그들은 다른 날에는 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P28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Normal 가족들은 건설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이건 다른 날엔 그들이 피곤해서 모든 것에서부터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29	일요일에는 가족끼리 휴식을 했습니다.
P30	이것이 바로 매우 다른 두 가족이 서로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방법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린 달라.' Luke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야!' Norman이 말했습니다.
P31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글쎄요, 그들은 거의 그랬지만... 고양이와 박쥐는 절대로,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답니다. "오, Nigel! 못된 고양아!" "오, Tibbles! 이 나쁜 박쥐야!"